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감옥에서 보낸 신혼생활

감리교신학대학생들의 민주구국헌장 배포사건



정명기\_ 감리교신학대 신학과 70학번,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간사, 한국기독교학생회(KSCF) 총무,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안산제일교회 담임목사(현), 안산의제21 공동대표(현)

###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77년 2월 출감한 후 실직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이 보내고 있었지만 이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구속된 지 약 10개월 만에 석방은 되었으나 함께 구속되었던 동지들이 전원 석방되지 못한 상태였고 석방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교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석방되었을 때 짧게 깎았던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면서 현실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빈민지역의 하나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동네에 도시빈민선교를 위한 희망교회를 설립하였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의 생활은 안정을 되찾아갔다.

교회의 창립은 기독교대한감리회선교국과 선교국장이신 김준영 목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학생 시절 기독교학생회총연맹에서 활동할 때 '학생사회개발단'의 멤버로 도시빈민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목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예수께서 처

음 하나님나라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갈리리지역 나사렛의 마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나도 사당동 산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다. 1년 동안은 혼자서 목회지역을 하였다. 희망교회에서는 지역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유치원, 새희망신용협동조합, 무료의료진료봉사, 청소년들을 위한 야간학교 등을 개설하여 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동네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목회활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주민들 가운데 여성들이 절반 이상 되었는데 여성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은 남자전도사로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바로 이때쯤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1976년 11월 1일 학생 때부터 뜻을 함께하기로 한 강명순과 결혼을 하였다. 우리들의 산동네에서의 혼인 생활은 비록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였다. 물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도시빈민선교를 하겠다고 산동네판자촌에 살림을 꾸리고 여러가지 사업과 활동을 꾸려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 어려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함께 있는 동안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혼의 단꿈도 6개월 만에 깨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내가 1977년 4월 18일 서대문 경찰서 형사들에 의해서 연행당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1978년 6월 4일 석방될 때까지 1년 2개월동안 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1977년 3월 22일 대법원에서 '3.1선언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있을 후, 3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윤보선, 정구영, 양일동, 천관우, 함석헌, 윤형중, 지학순, 박형규, 정일형, 조화순 등 10명의 서명으로 '민주구국헌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유신헌법의 철폐, 고문, 사찰, 폭압, 정보정치 종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혼 후에도 나는 도시빈민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전에 활동했던 기독교학생회연맹의 사무실이 있는 종로5가 기독교회관을 방문하였다. 그 해 4월 초순경으로 기억하는데 기독교학생회총연맹 사무실에서 박종열 선배를 만나서 이야기 하던 중 '민주구국헌장'이 발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유인물을 한 장 받아 보았다. 나는 그 유인물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담임으로 있던 희망교회의 청년회 회장이었던 김정택 군(당시 감신대학생)이 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보여 주었다. 김정택 군은 이 유인물과 함께 '민중회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함께 인

쇄하여 감신대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김정택, 신철호, 임성우, 남호균과 내가 구속된 것이다. 4월 18일 서대문 경찰서에 연행되기 5일 전부터 내가 살고 있던 집 근처에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고 집에 들어와 아내밖에 없는 데도 집안을 수색하고 여러가지 유인물들을 압수해 갔다.

4월 22일 민주구국현장의 소지 및 전달로 긴급조치9호를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민주구국현장이 발표된 이후 한 달 전후하여 민주구국현장을 직접 작성한 어른들(10명)과 이 현장에 동감하여 서명한 200명과 민주구국현장을 소유하거나 서명하기 위해 전달한 사람들은 잠시 조사를 받은 후 모두 석방되었다. 그러나 '감신대사건'에 연루된 학생들과 나는 구속된 것이다. 사실 민주구국현장 서명자와 작성자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학원사태 관련자들만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형평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였고 힘 없는 사람들만 구속하는 인권유린 행위였다.

구속된 우리를 다섯 명은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검사의 접견금지조치로 면회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의 취조를 받았다. 5월 27일부터 면회가 되었지만 한 주에 한 번 3~5분 동안만 허락될 뿐이었다. 6월 10일 공소장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긴급조치9호(5, 7항 가, 나) 위반으로 형사합의2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공소사실은 민주구국현장의 소지 및 전달죄였다.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된 지 85일 만인 7월 13일, 대법정에서 첫 심리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다섯 사람은 푸른 수의에 푸른 줄로 상체를 꽁꽁 묶인 채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잡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정에 출정할 때마다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오후 늦게까지 심리가 진행되었다. 1심 재판은 10월 15일에야 결심선고를 하였는데 구형 5년에,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78년 1월 11일에 시작하여 1월23일에 재판이 끝났다. 2심에서 형량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한다면 긴급조치9호의 입법취지와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다. 민주구국현장의 내용이 사실왜곡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유인물을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청년회 회장에게 준 것은 배포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주범은 처벌하지 않고 종범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납득이 가지 않는 공소권(사법권)의 행사라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다. 나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게 재판을 받지 못하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처벌을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신 것같이 불의한 왕을 심판하실 것이며 5년, 10년보다 더 극형이 가해지더라도 기쁘게 받겠다”고 진술하였다. 징역 1년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형이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석연치 않는 재판부의 태도를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1978년 4월 11일 오후 2시 15분 13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예상했던 대로 기각을 당했다.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삽입한다는 판시를 하였을 때는 더욱 열을 받았다. 1심에서의 8일과 상고 후의 78일을 합하여 모두 86일의 징역을 살았는데 46일을 계산에서 빼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석방날짜가 6월 4일로 미뤄지게 되었고 나는 약 1년 2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 구속되었던 1년 2개월 동안 내가 사당동에서 시작한 희망교회의 목회지역과 이와 관련한 모든 사업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아내인 강명순이 혼자 감당하여야만 하였다. 사실 구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감옥 밖에서 일어난 일은 나보다는 아내인 강명순의 일기 및 기록을 통하여 더욱 실감 있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내가 쓴 일기 및 편지를 일부 인용하려고 한다. 1977년 5월 26일 이후 면회가 시작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일 주일에 한 번씩 짧은 면회를 할 수 있었고 재판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내와의 편지가 유일한 대화의 수단이었다. 그밖에는 외부에서 보내온 편지는 물론 친구들의 편지나 카드도 전혀 받아볼 수 없었다. 가족들이 보내는 편지도 점열을 하고 난 뒤에, 네 장을 보내면 한두 장의 아주 기본적인 안부 인사정도만 실제로 받을 수 있었다. 다음은 아내와 내가 주고받은 편지와 우리가 쓴 일기들이다.

**1977년 4월 23**

여보!

바깥에는 비가 몹시 많이 와요.

부엌에 비가 새고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무척 속상해 했는데 지금 그곳 유치장에서 집 생각하고 있겠지요. 나는 몰라요. 자기

랑 나랑 떨어져서 산다는 것, 자주 생각 안 할래요.

어제는 철망 사이로 당신과 만났을 때 당신이 웃는 것 보면서 참 마음이 놓였어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무료 진료팀들이 와서 무사히 끝냈어요. 신혈월례회 프린트하고 주보 프린트하니까 경삼이가 여자 인쇄공이라 놀렸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대행해야 하지 않아요.

민주국헌장 발표하고 서명하고도 다 괜찮은데 어째서 당신은 그 사본을 가져갔다 교회 청년회 회장에 보여주었다고 알려졌나.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을 형사들이 찾아와 협박하고 영장 없이 수색하고 밤 12시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놀라게 하고 결국 진술서 한 장만 쓰면 상관없다고, 10분이면 모두가 다 끝나고 교회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서...

민주국헌장은 타임(Time)지에 보도되고 시판되었는데 웬 날벼락인지요. 아직 영장은 안 떨어졌으나, 웬지 불안해요.

신혼 5개월 반 만에 당신과 나는 헤어져서 한 사람은 부자유하게 되었으니 교회에 남은 일들 당신이 별려놓은 것 누가 다 할 것인지... 참 한심해요.

그러나 당신이 다시 산동네 올 때까지 깨 쏟아지는 신혼은 망각의 숲으로 밀어보내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11월 1

아내에게

안녕하겠지요. 당신의 편지를 읽고 당신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소. 제 1심 재판이 끝나고, 앞으로 일 년 동안 남은 정지된 시간을 앞에 두고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쉽고 시원섭섭(?) 합니다.

희망교회의 이 전도사님을 비롯 어린이, 학생, 신도들 모두 편안하겠지요. 희망 유치원, 원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새희망신용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어머니회의 모든 어머니들의 얼굴이 보고 싶군요. 요즘은 책을 읽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책을 잘 선택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소심에서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희망공동체의 모든 형제들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민들의 정신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희망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1월 14

아내에게 보내는 글

흐르는 시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저지할 수가 없나보오.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당신과 내가 결혼식을 한 지 한 돌이 되었군요. 나는 당신과 모든 천지들의 사랑으로 몸 건강히 잘 생활하고 있소.

매일 당신이 접견을 하러 와서 기분이 좋군요.

나는 주어진 시간을 결코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소.

지나간 세월을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이요. 당신도 자신의 생활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있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줄 믿고 있소. 지금은 흑석동(시택) 집에서 사랑동으로 출퇴근(?)하고 있나.

희망교회의 모든 일들에 더욱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임하기를 바라오. 좋은 시절이 오면 우리는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어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12월 28

여보! 그동안 교회 일에 쫓기다 보니까 편지도 써놓고 끝맺음 못한 것이 몇 장이나 되네요. 죄송미안미안해요. 여보, 한 해가 이제 다 갔어요. 뚜렷하게 이루어 놓지도 못하고 다 지난 것 같아요. 당신의 한 해는 그래도 나보다는 더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열심히 책 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려야지요. 당신이 보내주신 편지 두 통은 저의 삶의 생기였습니다. 이른 아침 무덤가 대나무 숲에서 지저귀는 참새 떼들의 울음(웃음) 소리를 들을 때 그 상쾌함이 하루하루를 신나게 해주는 것처럼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생명의 입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보낸 편지 중 제일 감격스러웠어요. 하기가 나는 감격파라니 하겠지만 그 편지 받고 막 뛰어들었다고요.

여보, 지는 해를 바라보며 돌아난 태양의 붉게 타는 그 빛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되어지는 때입니다.

1977년을 보내면서 재미있는 생각거리 두 개를 마련했습니다.

신에게 감사드리는 마음과 모든 어려움 그리고 또 밀려오는 빼앗김 그 후의 포기 등, 우리의 마음과 피와 살을 깎는 아픔 그런 것까지도 다 인내하면서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그건 신의 놀라운 은총이었고 나는 내가 마치 욕이나 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낼수 있었습니다.

### 1978년 1월 1

나를 휩싸는 불안이 1978년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를 덮치는 절망감, 불안감. 왜 무엇이 나를 이도록 절망케 하느냐. 대망의 새해라고들 떠들어 썼는데.

새해가 오고 정초가 되어도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우리 신앙만 없다. 그의 부지런한 생활, 목회자로서 정결한 태도가 없다. 그가 없는 교회와 그가 없는 산동케도 싫다.

하나님, 그를 희망교회로 보내주시고 그의 음성으로, 젊음으로, 그가 열심히 산동케를 뒤덮게 하소서!

그가 열심히 산동케에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더이상 차가운 감방에서 추위에 떠는 우리 형제들이 없게 하소서! 주님! 올해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 같이 흘러 민족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78년엔 모두 웃으며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모두 같이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화산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선발대로 삼아주소서!

모든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소서!

가난하고 억눌린 산동세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더욱 가난하게 살면서 늘 감사하며 끊임없이 회생하고 끊임없이 포기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소서!

### 1978년 6월 4

지난밤, 첫 새벽 출소한다는 것 때문에 여관에서 어머니와 잤다.

새벽의 어두움이 깔히기도 전에 구치소 철문 앞에서 기다린다.

왜 이렇게 안나올까. 혹시 형 집행정지가 풀린 것은 아닐까.

4시, 5시, 6시가 되어도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남편은 나오지 않는다. 불안으로 서성이는데 희뿌연

그림자 웃음 머금고 걸어온다.

눈을 닦고 보아도 걸음발이가 똑같다. 어머니와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며 좋아한다. 얼굴은 부었고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지 몸이 이상해 보였다.

가까이 문 철가덕 열리며 세상으로 나오자 두부를 먹인다. 악수를 한다. 난리가 법석이다. 그로록 기다린 재화인데 어찌 좀 이상하다. 눈물도 말도 나오지 않는다.

집으로 가서 한상에서 밥을 먹으며 예배를 보니 실감이 났다.

그에게는 파곤하겠지만 먼저 산동케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11시에 출우환영예배를 보았다. 갑자기 시골벽적 산동케에 꼬마들이 제일 좋아했다.

구속된 남편이나 자식들을 둔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가족들은 구속된 남편이나 자식들이 석방될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감옥 밖에서 구속인사 석방을 요구하는 각종 데모에 참가하거나 데모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연행, 납치, 미행, 연금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1978년 2월 28일 부터 3월 1일에는 대대적인 가택연금이 취해져 83명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일도 있었다. 그 기간에 교회행사도 있고, 새희망신용협동조합 월례회도 있고,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시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집 밖으로 나오니 검은 세단이 집 앞을 가로 막고 구석구석에 형사들이 배치되어 7, 8명의 건강한 장정과 방법대원이 아내를 못 가게 막아섰다고 한다. 아내는 결국 눈 내린 추운 겨울의 골목에서 한 시간 반이 넘도록 그들과 실갱이를 하였다고 했다.

아내는 어느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뒷문으로 탈출을 하였다. 하룻밤을 다른 곳에서 보내고 3.1절 이른 아침에 종로 5가의 기도회장으로 갔는데 기동대차와 수십 명의 사복형사들이 깔려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마침 문익환 목사님의 어머니(83세)가 손자들과 함께 기도회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함께 들어가려고 했는데 10명이 넘는 형사들이 달려들어 대기시킨 검은 승용차에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받쳐들고 몸부림치는 아내를 차에 처넣었다. 그리고 흑석동 집으로 강제로 데려와 또 다시 집안에 연금을 시켰다. 이같은 감시와 연행, 연금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던 게 긴급조치9호 시절이다.

1978년 6월4일, 석방이 된 후 나는 다시 사당동으로 돌아왔다. 내가 없는 동안 부진했던

교회의 목회와 가난한 주민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계속하였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1년 2개월 동안 헤어져 있었다. 이 기간은 분명 우리에게서 시련의 시간들이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온갖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석방이 된 후에도 정치적인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더욱 더 악화되었으며 민중들의 삶 역시 더욱 고통스러워져 갔다.

## 독재의 폭압에 온 몸으로 저항하다



양 관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기학번, 민주청년협의회 중앙상임위 부의장, 평화통일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사, 우리문화연구소 대표(일본), 고려대 객원교수(현), 오사카경법대 객원교수(현)

1971년 서울대에 입학한 때로부터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50대 중반, 장년에 접어들었다. 20대 혈기 팔팔했던 그 시절을 회상해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어렵게 서울대에 들어갔건만 대학 프레쉬맨으로서 또래들이 흔히 즐겼던 낭만을 즐기지도 못하고 데모에 휩쓸려 들었다. 독재권력의 중압에 숨막힐 것 같던 시절에 독재정권에 대놓고 저항한 것도 당시 대학생으로서의 낭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나는 연행, 제적, 강제징집, 가택연금, 투옥, 조작간첩, 망명 등 사형선고만 빼고 당할 만한 고난은 거의 다 당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걸어왔다. 긴급조치 시대를 중심으로 회상을 써달라는 주문을 받았지만 70년대를 독재권력에 온 몸으로 부딪치며 살았던 사람으로서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70년대 전체를 회고해보려고 한다.

71년 봄, 동숭동 문리대 캠퍼스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씨느강(문리대생들이 낭만을 회구하여 붙인 이름)가에 흐드러지듯 피어있었다. 하지만 영구독재정권으로 가느냐, 민주정치를 회복하느냐를 가름하는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학 초부터 캠퍼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무르익고 있었다. 69년 3선개헌을 국회별관에서 밤중에 날치기 통과시킨 박정희 대통령은 장